



박강원 소화테레사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총무 / 한국수채화작가회 회원

기쁨의 시간



길-혜화동2 72.7x60.6cm oil on canvas 2009



빛4-혜화동 41x31.8cm oil on canvas 2009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도 나를 위해 기도하리라는 믿음으로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의 시간을 소망한다. 나를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을 나도 찾아 만나려 애쓰는 오늘은 하느님이 불러주시어 다시 얻게 된 시간, 새로 받은 축복과 희망의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믿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며 살고 싶다.

그림을 그리려 혜화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을 찾았다. 숲으로 이어지는 언덕을 오르는데 두 마리 까치가 길 가운데 조용히 앉아 따뜻한 눈길을 보낸다. 햇살이 내려앉은 나뭇잎마다 바람의 숨결을 느끼며 걸음걸음마다 성모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사랑의 손길 따라 나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다.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깨닫고 그 뜻을 내다볼 수 있는, 꿰뚫어보는 눈길은 성모마리아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마더 테레사의 말씀처럼 기도는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분 손에, 그분 처분에 맡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다.

숲길이 끝날 무렵, 너른 운동장과 함께 다가오는 성당의 유리창에 새겨진 십자가 앞에 선다. 땅을 밟는 나의 걸음에 힘이 실리고 조용한 시간, 하늘을 보고 땅을 느끼며 주님과 나의 일치를 이루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구원은 철저히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그냥 따라가



길-혜화동1 37.5x56cm watercolor on paper 2009

며, 포도나무에 붙은 작은 가지처럼 내 모습 그대로 머물러야 함을 깨달아 한가하고 고요한 자리에 고독의 시간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리라.

마음의 침묵으로,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 마다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는다.

서울 성벽으로 이어지는 언덕에 십사처의 낮은 돌기둥 조각들이 둘러쳐져 있는 너른 공원이 펼쳐진다. 단풍나무로 가득 차 있는 편안한 공간에 들어서니 시몬, 요셉이라 이름 새겨진 노란 리닝셔츠를 입고 그 곳을 달리며 호흡을 가다듬는 학사님들이 눈에 띈다.

목적에 향해 나아가며 그것을 의식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는 과정은 목표를 갖고 그분의 시선에서 나를 보려 노력한다. 십사처 한 곳 한 곳마다 까치와 함께 끊임없는 기도를 바칠 수 있는 힘을 눈부신 햇살의 영으로 비추는 단풍의 빛깔로부터 얻게 된다.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삶의 한 장 한 장, 시작과 끝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 안에서 새 꿈을 꾸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기에 움켜쥐고 있던 손의 것을 놓아야 비상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고비마다 겪는 힘들음을 나를 돌아보는 살아있는 기도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눔을 할 수 있는 가난함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얻는 기도를 드린다.